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T_ 054. 478. 7114 / F_ 054. 478. 7100
<http://www.kumoh.ac.kr>

CONTENTS



18

Focus

- 04 금오공대 제7대 이상철 총장 취임식
2017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LINC+사업단,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 항공교통분야 빅데이터 공모전, 대상
2017 TRIZ 전국경진대회, 대상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수상
2017 노벨상 탐구 발표경연대회, 동상

Together Kumoh

- 08 동문기업 탐방_정우(80학번 이용진 대표)
토목인의 날 행사 개최
서길호 (주)진성전자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최운하 (주)포유 대표, 경상북도지사 표창
학생-기업 CEO 멘토·멘티 결연 6년째

Community

- 24 국방 ICT 융합 산·학·관·군 협력대전
김천 ICT산업 육성 컨퍼런스
Creative-Idea EXPO 2017
제3회 전공체험·과학경진대회



표지 사진
이지수 작가 봄의 기억 - 기다림(2014작)

금오공대 소식
DEC 2017 KUMOH LETTER VOL. 178

발행일 2017. 12. 15.
발행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발행처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054) 478-7078
주 소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디자인 애드케이트 054) 456-3434



25



08

People 교수

- 14 신임교수 소개
박범용, 전석진, 정유철, 이재민 교수
홍성욱 교수, 제23대 (사)한국정밀공학회장 선임
송영준 교수,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시니어 멤버 선정
박준영 교수 연구팀, 비상 탈출시 FIS 효과 입증
이원태 교수,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 표창
김준식 교수,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최우수논문상 수상

kit Culture

- 27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강원국 '북 콘서트'
금오공대갤러리 이지수 초대전
금오공대갤러리 이민한 초대전

kit Love

- 30 NH농협은행, 발전기금 전달
경영학 석·박사원우회 발전기금 전달
후원의 집
기부
약정서
발전기금

People 학생

- 18 2017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참여
6번째 대한민국 인재상 배출
美, ARLISS 2017 대회, 최우수기술상
2017 대학창의 발명대회, 최우수상
2017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3D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최우수상

28





우리 대학은 11월 22일 오후 3시, 본관 대강당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이상철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상철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향후 대학 운영의 비전으로 '미래형 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제시했다.

“새로운 금오, 행복한 금오” 미래형 공학교육 선도대학 추진

이상철 총장은 취임사에서 “교육은 대학의 존재 이유이며, 대학에서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교육으로 집약되어야 한다”며, “과거를 답습하거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 병행 교육 중심 대학으로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협력·공감하는 조직문화 위에서 행복한 대학을 만들어, 지역이 자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금오공과대학교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상철 총장은 서울대 섬유공학과와 동 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1990년 금오공대에 부임했다. 금오공대 기획협력처장, 초대 산학협력단장, 산업대학원장, 교무처장 등 교내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임기는 2017년 10월 20일부터 4년간이다.

취임사

친애하는 금오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공학교육 역사의 중심, 금오공과대학교 제7대 총장직을 맡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6대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난 4월 이후, 앞이 보이지 않던 6개월간의 공백 동안 저도 그러했지만, 학교도, 또한 우리 구성원 여러분도 많은 혼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 혼란의 틈을 열심히 메워 준 전임 보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총장 공백 상태의 학교가 제자리를 잘 지키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오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구야말로 새로움의 가장 첨단에 서 있는 활동이자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병행 교육 중심 대학으로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 잘하는 대학,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잘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대학이 내적으로 충실해지고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성원의 꿈과 열정과

연구 병행 교육 중심 대학으로 정체성 확립 연구 잘하는 대학, 그래서 교육 잘하는 대학

지난 1979년 설립되고 1980년 개교한 금오공과대학교는 머잖아 불혹의 나이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양적, 질적인 성장의 시기를 거쳤고, 창의적인 도전과 도약의 시기도 보냈습니다. 실력 있는 인재, 인성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라는 명성도 얻었고 지역과 국가 산업에 기여하는 대학이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금오의 빛나는 역사 한 올 한 올을 수놓아 주신 전임 총장님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대학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금오가족의 행복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을 거치며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셨던 공약 사항들을 하나씩 이행해가며 새로운 금오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금오의 비전은 미래형 공학교육 선도대학입니다. 교육은 대학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이며, 대학에서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결국 교육으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과거를 답습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교육이 아닌, 끊임없이, 줄기차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학은 늘 새로운 것과 만나고,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미래형 공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형 공학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의 공학교육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그리는

활력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이라는 대학 구성원 3주체가 행복해야만 바로 꿈과 열정과 활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금오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서로 협력하고 공감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시스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부족함 없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실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늘 귀를 열고 구성원들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이러한 금오의 토대 위에서 금오의 3주체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인성, 창의성,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 공학인의 요람, 지역 산업 재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라는 위상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금오는 지역이 자랑하는 대학, 국가와 국민이 신뢰하는 대학,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직원 여러분, 여러 교수님들, 모두가 저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역사의 새 장을 펼치는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이전 성과

2017 동아일보 취업·창업 역량 평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 대학역량·재학생 만족도·취업률 종합 평가
- 평가 참여 첫해에 최우수 대학



취업·창업 지원역량 뛰어난 '청년드림대학' 본보·고용부·마크로일엠브레인 공동평가

금오공 송실 중앙대 최우수

(신규선정·가나다순)

서강, 4회 연속 최우수대학 선정
고려 속명 등 15곳은 우수대학에

금오공대 송실대 중앙대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에 새로 진입했다.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한양대는 올해도 최우수 대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7일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리서치회사인 마크로일엠브레인과 함께 실시한 2017년 청년드림대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금오공대 등 10개 대학이 최우수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금오공대와 중앙대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고, 송실대는 2013년 1회 평가 이후 다시 최우수 대학으로 복귀했다. 이들 대학은 대학의 역량 평가와 취업률 등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서강대는 1회 평가부터 올해까지 4회 연속, 성

2017 청년드림대학 선정 결과

구분	대학	가나다순
최우수 청년드림대학	금오공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송실대 중앙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양대	
우수 청년드림대학	가천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가톨릭대 상명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대 호서대	
청년드림대학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공운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연세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한밭대	

가나다순
여간이 우수한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알차게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4년제 대학 227곳 중 1차 평가를 통과한 4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창업과 관련된 대학 역량과 재학생 만족도, 취업률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우수 대학과 청년드림대학을 각각 선정했다. '우수 청년드림대학'에는 고려대 속명여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 중 한양대는 4회 연속, 가천대 건국대 아주대는 3회 연속으로 우수 대학에 뽑혔다. '청년드림대학'에는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 등 20개 대학이 뽑혔다. 동아일보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드림대학과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 중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특히 우수한 곳을 선발해 동아일보 사장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유익영 기자 yeoly@donga.com A2-3면에 관련기사

우리 대학이 동아일보가 주관하고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후원으로 실시한 '2017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됐다.

11월 27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송실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과 함께 '취업·창업 지원 역량'이 뛰어난 청년드림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드림대학 평가에 참여한 우리 대학은 첫 해에 최우수 대학에 올라 대학의 우수한 역량과 취업률을 입증했다.

청년드림대학은 대학의 인재육성, 취업·진로 및 창업 지원역량을 수요자 관점에서 조사해, 실질적으로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는 우수 4년제 대학을 매 2년마다 선정하는 평가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 4년제 대학 227개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대학 10개, 우수대학 15개, 청년드림대학 20개를 선정했다.

기술협력 부문 최우수 성과 LINC+사업단,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이 2017 산학협력 EXPO의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이번 경진대회는 '인력양성' 및 '기술협력'의 두 부문에서 각 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했다. 우리 대학은 '산업현장 애로기술 발굴을 통한 시스템적 해결로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성과창출'이라는 사례로 기술협력 부문에서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대구·경북·강원권 대학 중 유일하게 우리 대학만이 올해 기술협력부문 산학협력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우리 대학 LINC+사업단은 올해 초 선정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창의·융합·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김학성 LINC+사업단장은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 2012년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력양성부문'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기업관점 산학협력평가'에서도 2년 연속(2014~2015)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평가에서는 4년 연속(2012~2015) 매우우수 그룹에 선정됐다.

“금오공대는 내 삶의 토대, 열정 있는 삶 위해 노력”

통신전공 80학번 동문 이용진 대표
독창적 기술력 확보, 자동차 부품회사 설립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위치한 마을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듯한 건물이 하나 눈에 들어온다. 그 건물 앞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이용진(57·통신전공 80) '정우' 대표다.

“여러 길을 돌아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배운 전공도 그 바탕에 있죠. 신생 기업이지만, 이 공장에서 양산되고 있는 부품들이 국내·외 주요 자동차 회사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설립된 '정우'는 '고객중심·가치창조·품질우선'이라는 사훈(社訓) 아래 작지만 세계 최고의 회사를 꿈꾼다. '작지만 강한 대학', 우리 대학과 많이 닮았다.

“직원들이 가족처럼 밝은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편해야 기분 좋게 일도 잘되지 않겠어요.”

이용진 대표의 노력 덕분에 '정우'는 2013년 1억4천6백만 원, 2015년 5억7천만 원, 2016년 10억9백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여기에는 이용진 대표의 다양한 경력이 바탕이 되었다. 1980년 우리 대학 통신전공(현재 전자공학부)으로 입학한 이 대표는, 졸업 후 평화 크리치 연구소와 평화 발레오의 기술연구소, 품질 관리부, 연구 시험실, 디스크 생산부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특히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다 인도의 아말가메이션 발레오(Amalgamation Vale) 연구소 이사로 이직했으며, 이후 정우 무역 대표 이사로 근무하다 지금의 자동차 부품회사를 설립하게 됐다.

“무역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가 영원성을 가지려면 제품 생산의 기초 위에 판매 및 수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열정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대표는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주어진 인생,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한가지에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세상을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대표는 후배들을 위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대학 출신들은 무슨 일이든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회사를 더욱 안정화 제도에 진입시키고, 모교 및 동창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습니다”

충북 제천이 고향인 이 대표는 현재 정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최경임씨와 아들 2명이 있다. 취미는 골프 및 사진촬영이다.



◀ 이용진 정우 대표





“내 삶을 말하는 당당한 이름, 금오공대 토목인”

토목공학과 총동문회(회장 김대환)가 10월 2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2017 금오공과대학교 토목인의 날' 행사를 구미 컨트리클럽, 금오공대 캠퍼스, 금오산 호텔 등에서 진행했다.

총동문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준비된 2017 토목인의 날에는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입학 30주년을 맞이한 87학번 동문들의 '홈커밍데이', 그리고 '동문애 가족애 힐링캠프' 및 '토목인의 밤'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신평동 및 양호동 캠퍼스를 방문한 토목공학과 동문들은 추억을 회고하며 변화된 모교의 발전상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오산호텔 컨벤션센터에서는 "2017 우리 대학 토목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모인 300여 명의 토목공학과 동문과

가족, 그리고 교수 및 재학생들은 모교 발전상과 옛 추억을 담은 동영상 시청, 학년별 노래 자랑 등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보냈다. 87학번 동기회에서는 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학과로 전달하고, 2017학년도 신입생에 대한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학과 점퍼를 후원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김대환(86학번) 토목공학과 총동문회 회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동문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있기에 이러한 행사 개최가 가능한 것 같다"며, "자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선·후배 동문들과 은사님, 재학생들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내년 토목인의 날은 2018년 10월 20일 예정이다.

서길호 (주)진성전자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수상

IT융합학과 재학 중 영예 안아, 전자부품 정밀 패키징 기술 개발로 지역 산업 육성

IT융합학과에 재학 중인 서길호 (주)진성전자 대표이사(58)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대·중소기업 간 협력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게 주어진다. 시상식은 '2017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동반성장 유공자로 선정된 서길호 (주)진성전자 대표이사는 전자부품 정밀 패키징 기술 개발로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 2점을 포함해,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6점 등 총 44점의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서길호 (주)진성전자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미래 신소재 개발과 지속적인 R&D 투자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구미시 4공단로에 위치한 (주)진성전자는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의 핵심인 PCB(인쇄 배선 회로 기판), PCBA 등을 생산, 공급하는 전문 업체다. 2013년 8월 우리 대학과 가족회사 협약을 맺고 연구개발 등을 함께 하고 있다.





제17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 경상북도지사 표창

금오공대 가족회사와 직원이 10월 26일 열린 '제17회 경북산학협력기술대전'의 산학유공분야 기업부문 및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부문에서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는 최운하(남·48) (주)포유 대표이사와 윤진영(여·27)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주무관이다.

최운하 (주)포유 대표이사는 우리 대학에서 지원하는 다수의 산학협력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지역 기업과의 기술융합을 통한 스마트 IoT 제품군 개발 진행을 통해 신성장 동력 제품을 발굴하고, 우수기업 인력 확보로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았다.

윤진영 우리 대학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주무관은 중소기업창업부 등에서 지원하는 국가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左 최운하 (주)포유 대표이사
右 윤진영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주무관



학생-기업 CEO 멘토·멘티 결연 6년째

6년째 이어지는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취·창업 연계,
현장 교육 강화 노력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기업 CEO 멘토·멘티 결연' 행사가 11월 24일 개최됐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금오공대 LINC+사업단(단장 김학성)과 (사)대구경북성공CEO포럼(회장 송영식)이 공동 주최했다.

6년째 시행돼 오고 있는 이 행사는 지난해까지 714명의 멘토·멘티가 이어졌으며, 올해는 신호준(신소재공학부 4년) 학생과 정민선 (주)CRD 대표를 비롯해 30쌍 60명의 결연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취업지도, 공동기술 개발, AISET 기술지도, 현장실습·기업연계 캡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현장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 및 창업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멘토로 참여한 신호준 학생은 "취업 및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업 CEO 멘토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멘토에 참여한 정민선 (주)CRD 대표는 "기업 대표로 혹은 인생 선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기업에게는 잠재적 인력풀을 창출하고, 학생들은 취업 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학성 LINC+사업단장은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이 학생 취업 및 창업으로 이어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금오의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신임교수_박범용, 전석진, 정유철, 이재민 교수

박범용 교수 ▶



Q 1. 소개

A. 전자공학부 정보전자전공 신임교원 박범용입니다.

Q 2.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A.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부터 막연히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금오공과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어서 기대와 설렘이 무척 큼니다. 임용되기 전에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어서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2.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A. 대학원에서는 외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강인제어 이론에 대하여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인 삼성전자 생산기술 연구소에서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연구·개발하였습니다.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어이론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 중 하나인 로봇을 개발하는 일을 선택하였고 대학에서도 이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

A.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제어이론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이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팩토리의 중심인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제어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Q 1. 소개

A. 화학소재융합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신임교원 전석진입니다.

Q 2.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A. 신임교원으로서 첫 학기를 보냈습니다. 구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학교에서의 강의에 적응하는 것이 처음엔 쉽지 않았는데, 선배 교수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첫 학기를 무사히 보낸 것 같습니다.

Q 2.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A. 화학공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고분자 분야에 제일 흥미가 있었습니다. 고분자는 작은 미세구조의 차이로 다양한 물성의 변화를 갖는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관련 분야의 연구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는 블록공중합 고분자 자기조립에 대해 연구했고, 포닥 때에는 하이드로젤 고분자를 이용한 미세 구조물 제작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지금 고분자공학전공신임교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

A. 지금 하고 싶은 연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이드로젤을 이용한 미세 액추에이터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나노입자의 형상을 제어하는 연구입니다. 미세 액추에이터는 의료용 미세소자 용도로 발전시키려고 계획 중이고 나노입자 연구는 형상에 따른 다양한 응용분야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의 개선에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신 기술 동향이나 연구 동향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졸업 후 전공 관련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석진 교수 ▶



정유철 교수 ▶



Q 1. 소개

A. 컴퓨터공학과 신임교원 정유철입니다.

Q 2.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A.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과 교감하는 일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첫 학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아주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국가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다가 학생들을 마주하니, 활기차고 즐거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Q 2.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A. 저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딥러닝에 관련된 세부 연구를 했습니다. 석사 때는 로봇인공지능, 박사 때는 자동 지식 구축 및 기계학습을 연구했습니다. 석사 때 humanoid 로봇의 지식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로봇의 지능 부분, 특히 자동 지식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ETRI/KISTI 등의 연구소에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공유/활용 플랫폼을 개발 진행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도 실행했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

A. 알찬 강의 준비로 학생들이 전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특히 CI(Cognitive Intelligence) 연구실 운영을 통해 새로운 연구들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의료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과 가짜 뉴스 탐지, 분야별 지식의 자동 구축 및 추론 기법 연구 등도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Q 1. 소개

A. 산학협력단 ICT융합분야 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있는 이재민입니다.

Q 2. 신임교원으로서의 소감

A. 먼저 금오공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있다가 학교로 온다는 것이 큰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첫 학기는 강의에 많은 고민을 하며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학협력중점교수로서도 산학 및 대외협력 등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2. 전공 소개와 전공 선택 계기

A. 석사 때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박사 때는 실시간 통신망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에서 모든 사업부의 문제 해결과제를 수행하는 트리즈 컨설팅을 접하게 되었고, 소재, 제조 설비, 광학 등 다양한 분야와 상품기획, 신제품 콘셉트 발굴 등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ICT융합 분야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Q4. 앞으로의 계획

A. ICT융합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 요소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과 기술 전반에 활용돼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분야입니다. 여러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빅데이터, AI, IOT 통신 등 요소기술을 고도화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IOT 통신, 특히 LORA나 NB-IoT 등 원거리 통신망 연구를 통해 소재, 스마트팩토리, 드론, 메디컬IT 등 여러 분야의 교수님들과 협업해 산학협력 연구를 활성화 하고 싶습니다.

이재민 교수 ▶



● **홍성욱 교수, 제23대 (사)한국정밀공학회장 선임**



기계시스템공학과 홍성욱 교수(56)가 (사)한국정밀공학회 제23대 회장에 선임됐다. 홍 교수는 2016년 열린 한국정밀공학회 평의원회에서 2017년 수석부회장에 선출됐으며, 1년 임기의 수석부회장직에 이어 2018년 회장직을 맡게 됐다. 회장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1984년 창립된 (사)한국정밀공학회는 4천여 명의 개인·기업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정밀공학 분야 최대 학회다. IJPEM, IJPEM-GT 등 2개의 SCI급 국제 학술지와 스크opus(SCOPUS)에 등재되는 국내 학술지인 한국정밀공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신임 회장에 선출된 홍성욱 교수는 “정밀공학 분야 연구와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욱 교수는 그동안 학회 편집이사과 사업이사, 공작기계부문화장과 선출직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학회 편집위원장, 춘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국제녹색생산 심포지엄(ISGMA) 조직위원장 등으로도 활약했다.

● **송영준 교수, IEEE(미국전기전자학회) 시니어 멤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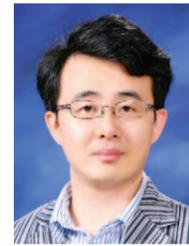
전자공학부 송영준 교수(52)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시니어 멤버로 2017년 9월 선정됐다. IEEE는 세계 최대의 전기, 전자, 전기통신,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 IEEE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는 이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IEEE는 세계 160개국에서 약 4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9%만 시니어 멤버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송영준 교수는 IEEE 서울지부, 정보이론연구회(Information Theory Chapter), 한국통신학회(KICS)의 부호이론 및 정보 연구회(Coding and Information Theory Society)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보기술학회(Journal of KIIT)로부터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송 교수는 3GPP W-CDMA 시스템의 채널 측정 및 동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파일럿 패턴을 발명하고, 이를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협력 기구인 3GPP 국제 표준에 반영시켰다. 또한 W-CDMA 시스템에서 제어정보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TFCI 코딩 기법을 발명, 제안하고 국제 표준에 적용했다. 이러한 산업계, 학계에서의 우수한 연구 및 교육, 봉사 실적을 인정받아 IEEE 시니어 멤버로 선정됐다.

송영준 교수는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LG전자 책임연구원을 거쳐 2002년부터 우리 대학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박준영 교수 연구팀, 비상 탈출시 FIS 효과 입증**



기계설계공학과 박준영(48) 교수 연구팀이 비상 탈출 시 발생하는 ‘FIS(Faster-Is-Slower)’ 효과를 입증해 그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FIS 효과는 비상시 빠르게 탈출하려 하면 더 늦어지고, 느리게 나가려 하면 더 빨리 탈출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을 의미한다. 화재나 재난 시, 병목구간을 빠르게 탈출하려고 하면 무질서가 발생해 오히려 더 늦어진다는 의미다.

박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Mouse)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개체의 속도 편차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최초로 입증했다. 연구결과는 지난 20일 네이처 자매지로 복잡계 물리학 분야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우리 대학 석사 졸업생인 오혜진 연구원(27·뉴욕주립대 박사과정)과 함께 진행됐으며, 한국연구재단 지역우수과학자 사업 및 우리 대학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민군융복합분야)의 지원을 받았다. 박준영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위급한 상황에서 민·군의 안전한 대피경로 확보 등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 피난 시뮬레이터 개발과 국방 산업과 연계한 연구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태 교수,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국무총리 표창**



화학소재융합공학부 이원태 교수(44·환경공학전공)가 ‘제18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혁신분야 교수·연구원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이 교수는 2011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다양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며 환경공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러 기업과 함께 수행한 산학공동과제들이다.

‘산업폐수 재이용을 통한 용수공급기술개발’, ‘천연응집제를 활용한 조류제거기술 현장 적용성 향상’, ‘고부가가치 농작물 양액재배용 친환경 소독기술 개발’ 등의 연구는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18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최근 3년간

15건의 산학협력 공동기술개발을 이루었다. 이원태 교수는 “연구 결과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경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준식 교수,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최우수논문상 수상**



기계시스템공학과 김준식 교수(46)가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명은 ‘생브낭 원리를 이용한 고전 보 이론의 고유진동수 및 좌굴하중 예측 개선’으로, 김 교수의 연구는 건축, 토목, 기계, 항공 등 공학 분야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보 구조물에 대한 효율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학문적으로 생브낭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식 교수는 “공동저자인 정몽민(박사과정, 30) 학생을 비롯해 논문 집필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발전과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최우수 논문상 시상식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7 대한기계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진행됐다. 대한기계학회논문집A(제40권, 제4호) 논문상은 재료 파괴 및 신뢰성, 전산 및 응용역학, 동역학 및 제어, 설계공학 및 생산 분야에서 독창적 연구 주제를 통해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저자를 선정해 학문 발전과 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17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참여



우리 대학 산악부 선후배 2명 참여
대경 지역 유일, 글로벌 리더 역량 높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대학에서만 2명이 '2017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에 선발돼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우리 대학 산악부 출신 및 소속인 최덕(25·신소재공학부 졸업), 이상웅(23·기계시스템공학과 3) 씨가 그 주인공이다.



2001년 시작된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는 글로벌 리더십과 도전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국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1,00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서류, 2차 면접 및 체력(아웃도어) 테스트를 통해 전국에서 30명의 학생이 최종 선발됐다.

우리 대학 산악부장 출신인 최덕 씨는 7월 22일부터 19박 20일간 키르기스스탄의 카라쿨, 알튼알라산, 알라콜패스(3,860m)를 시작으로 알라아르차 국립공원의 우치텔 피크(4,527m)등을 등반했다.

최 씨는 "아마추어 산악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후배에게 권장해 함께 참가하게 됐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오지의 산과 들을 다니며 운행팀장으로서 탐험한 시간들이 인생의 많은 길을 열어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K2의 베이스캠프를 향한 이상웅(23·기계시스템공학과 3) 학생은 고산병이 발생한 일원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7월 21부터 20박 21일의 기간 동안

우르두카스 등을 거쳐 4,600m 고지의 파키스탄 콩고르디아까지 올랐다.

현재 우리 대학 산악부장인 이상웅 학생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더 중요

한 것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

다"며, "후배들에게도 이 경험을 꼭 권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1986년 창립한 우리 대학 산악부는 32년 전통의 명문 산악부로 제55회 전국 60km 극북 등반대회 여자 대학부 우승(2013), 제3회 새마을기 금오산등반대회 남자부 우승(2013)에 이어, 지난해 제49기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2017 대한민국 인재상 선정



우리 대학 6번째 대한민국 인재상 배출

발명·창업 특화 인재, 창의·인성 교육 '결실'

산업공학부 4학년 신나라(여·25) 학생이 '2017 대한민국 인재상'에 선정됐다. 이로써 우리 대학은 2012년 하재상(전자공학부 졸업), 2014년 최현진(소재디자인공학과 졸업), 2015년 이상욱(기계시스템공학과 졸업), 2016년 강병규(전자공학부 졸업)·정동근(기계공학과 졸업) 씨에 이어 4년 연속 인재상 배출의 쾌거를 거뒀다.

신나라 학생은 그동안 산업공학부에서 운영하는 치즈(CHEESE-Creativity, Human, Emotion, Experience, Solution, Evaluation) 프로그램과 대학 창업동아리 거북선신화 등을 통해 창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또한 우리 대학 LINC+사업단과 창업교육센터를 통해 창업특강, 멘토링, 융합형캡스톤디자인 등을 지원받아 다수의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그 결과 세계여성발명대회 은상·특별상(2015),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상(2016), 제9회 중국국제발명전시회 은상(2016년), 독일국제아이디어·발명·신제품전시회 특별상(2017) 등 국내·외

유수의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52회 발명의 날에서는 발명 유공자로 선정돼 특허창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발명품 가운데 6건을 특허 출원하고, 지역 기업과 2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신나라 학생은 "생활 속의 불편을 개선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발명·창의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은 창의·융합 인재를 발굴해 미래 국가의 주축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대학부 40명, 고등부 50명, 청년 일반인 10명 등 총 100명이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신나라 씨를 포함해 4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美, ARLISS 2017 대회, 최우수기술상



기계시스템공학과 학생 4명이 미국 캔워싱턴 대회 'ARLISS 2017'의 드론 부문 최우수기술상(Technology Comeback System Award)을 수상했다.

또한 특별상에 해당하는 우수설계상(Good Design Award)까지 받아 2관왕의 영예를 안았으며,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수기술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기계시스템공학과 이청화(27·석사과정), 오재환(25·4년), 김준성(25·3년), 정희운(22·3년) 학생은 팀명 '체크로드(Check Road)'로,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블랙 록 사막(Black Rock Desert)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가했다.

ARLISS(A Rocket Launch for International Student Satellites) 대회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드론을

12,000ft까지 발사한 후 GPS를 이용하여 목표 지점까지 되돌아 오게 하는 경연이다. 학생들은 지난해에 이어 자율경로 탐색이 가능한 쿼드콥터 타입의 드론을 자체 제작했다. 이 드론은 날개가 펼쳐지면서 GPS 및 기타 센서의 복합 작용으로 비행하게 된다. 특히 드론의 자세와 고도, 위치를 PID 제어*로 분석하여 안정화시킨 점이 주목받았다. 체크로드팀은 설계측면에서 경량화와 진동 억제 등을 통해 드론을 비행에 최적화시키고, 이중 PID 제어를 통해 비행 성능을 강화시킨 점에서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대회 팀장을 맡은 이청화 학생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드론에 도전하여 이런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대회 준비를 함께 한 팀원들과 주백석 지도교수님, 융합형 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주백석 교수(기계시스템공학과)는 "학생들과 사업단의 꾸준한 노력으로 2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것 같다"며,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해서 이루어낸 우수한 성과가 우리 대학 학생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PID 제어(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Control) : 제어 변수와 기준 입력 사이의 오차에 근거하여 계통의 출력이 기준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피드백 제어의 일종

2017 대학창의발명대회, 최우수상

우리 대학 학생들이 '2017 대학창의발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7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창의발명대회는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해 아이디어의 권리화를 지원하고, 참여 학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35개 대학에서 5,006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됐으며, 22개 대학 35팀의 작품이 선정됐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비롯해 장려상 4개 부문, 발명동아리 2개 부문에서 고른 수상 성적을 거뒀다.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으로는 백승주(기계시스템공학과 3년), 소우주(소재디자인공학전공 2년), 신영섭(기계공학과 2년) 학생의 작품 '실수 없는 수혈바늘'이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태양광을 활용한 슬라 스포일러 차량내부 온도 조절기(조규민, 조인권, 최영인) △실내용 바퀴와 실외용 바퀴가 구비된 캐리어(신나라, 조규민, 윤희현_대구한의대) △안전벨트의 위치조정 및 장력 조절장치(이승현, 최재원)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이용한 동선 설계 방법(오승엽, 임승연, 정기훈) 등 4작품이 선정됐다. 우

리 대학 창업동아리 '거북선신화'는 최다수상 및 최다신청 발명동아리상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6년에도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고, 2015년에는 국무총리상 1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을 비롯해 지도교수상과 발명동아리 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 대회 최다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한편 대학창의 발명대회는 특허청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했으며, 시상식은 11월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2017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7 서울국제 발명전시회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30개국 632점의 발명품이 출품됐다.

S.G팀(산업공학부 조규민·신나라·최영인)의 '산화 방지 기능을 갖춘 화장품 용기'가 이 대회에서 금상에 선정됐다. 화장품의 용기에 별도의 덮개를 설치하고 반응성이 낮은 기체를 투입해 산화를 방지하여 화장품 사용에 문제가 되는 변질을 막고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작품이다. 은상은 마닐마닐버터팀(산업공학부 유성민·신나라·이상엽·전민호·제연심·조규민·최영인·허수경·황세동)의 '분리 결합이 가능한 보조배터리'가, 동상은 KFC팀(기계시스템공학과 김신호·김준성)의 '삼각대 신호



의 표시 장치'가 수상했다. 이번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2017 대한민국지식대전'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시상식은 12월 2일 현장 심사에 이어 이뤄졌다.

3D프린팅 창작 경진대회, 최우수상

우리 대학 구진성 학생(기계시스템공학과·4년) 외 2명으로 구성된 감성Eng팀은 '제1회 3D프린팅 창작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움직이는 창작물 단체부문에서 '재난지역 탐사로봇(Exploration robot)'으로 이와 같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크기 56×68×46cm, 무게 약 6kg의 탐사로봇은 2대의 3D프린터로 250시간 이상을 소요해 만들어졌다. 몸체 28개, 바퀴 12개, 로봇암(robot arm) 50개, 기타 센터에 20개 등 전체 100개 이상의 부품을 출력해 제작됐다. 여기에 360도 회전 서보 모터(Servo motor), 카메라(camera), 블루투스 보드(blueetooth board), 태양광 패널(solar panel), GPS센서(GPS sensor) 등 총 40여 개의 전자부품이 사용됐다.

감성Eng팀의 탐사로봇은 공간적 제약이나 잠재적 위험요소로 인

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내·외부 상황들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전면 장착된 로봇암을 이용해 재난지역의 샘플 채취와 장애물 제거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건물 붕괴 지역, 오염 지역 탐사 등 민간목적의 사용은 물론, 군사적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상식은 12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ICT 기기산업 페스티벌 2017'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항공교통분야 빅데이터 공모전, 대상

산업공학부 학생들이 '2017 한국공항공사 항공교통분야 빅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산업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이경영(26·3년·팀장), 최영재(26·3년), 황민(24·3년), 김초현(24·3년)으로 이루어진 '디조인(D-Join)' 팀이다. 디조인 팀은 한국공항공사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스마트 공항 실현을 위해 시행한 이번 공모전에서 '빅데이터와 증강현실을 적용한 공항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빅데이터, CDI(고객데이터통합) 등을 활용해



공항 서비스의 다양한 정보를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다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 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17 TRIZ 전국경진대회, 대상

'2017 TRIZ 전국경진대회'에서 우리대학 학생들이 대상(전주대학교 총장상)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싱크탱크(Think Thank)' 팀으로 출전한 박성진(소재디자인공학과·4년), 전가람(신소재공학과·4년), 송혜진(광시스템공학과·3년), 나정원, 이대건(기계시스템공학과·4년) 학생은 '습기 조절 기능성 마스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이중 필터를 통해 마스크 내부의 잔류 공기를 배출함으로써 답답함에서 오는 불쾌감과 세균번식의 환경을 예방한다. 성능 저하와 수명 감소를 방지하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 사용에 오는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 본선에 진출한 17개 팀 중 싱크탱크 팀은 TRIZ적 문제해결에 가장 접근하여, 시장성과 경쟁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싱크탱크 팀은 청중단의 현장 투표 결과 슈



퍼스타상도 함께 수상했다. 팀장을 맡은 박성진 학생은 "팀원들과 함께 경진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방법을 고민하며 창조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한 팀원들과 지도해 주신 김영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8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열린 '2017 TRIZ 전국경진대회'는 전국 대학생의 창조적 문제해결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 문제해결 방법론인 TRIZ를 활용, 창의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회다.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수상

'2017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수상 3개, 장려상 5개 등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 주관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154개 대학에서 3,608팀(3,958명)이 참가했다.

우리 대학은 연구개발 전략 수립 기법을 거루는 특허전략수립부문(팀 부문)에서 우수상 2팀(신소재공학부 김윤석·오병운·최여진, 기계시스템공학과 유하나·이해연)과 장려상 2팀(기계공학과 김수현·여상현·이돈휘, 전자공학부 류지수·박윤영·최현수)이

수상했다. 선행기술조사부문(개인 부문)에서는 우수상 1명(신소재공학부 김기화), 장려상 3명(전자공학부 김종웅·허경욱, 기계공학과 이민정)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21일 서울 조선포털에서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및 대학 관계자, 후원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오공대는 이 대회에서 2015년 특허청장을 비롯한 7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2016년에도 한국공학한림원장상 등 11개를 수상한 바 있다.



2017 노벨상 탐구 발표경연대회, 동상

'2017 노벨상 탐구 발표경연대회'에서 광시스템공학과 신재용(25·4년)·안기덕(25·4년), 화학소재융합공학부 응용화학전공 이관영(25·4년)으로 이루어진 안트맨(Ant-Man)팀이 동상(국립과천과학관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트맨 팀이 발표한 '불개미 뗏목구조를 이용한 탄성 에어로젤'은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미래형 단열소재에 관한 연구다. 탄성 에어로젤은 서로 다른 분야의 요소들이 결합할 때 각 요소들이 갖는 에너지의 합보다 더 큰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는 메디치 효과를 적용한 신소재다. 안트맨 팀은 불개미가 이루는 뗏목구조를 활용해 에어로젤의 탄성력을 높여, 춥거나 더운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

능하게 했다.
* 에어로젤(aerogel) : 에어로졸 입자가 침강하여 서로 접촉되고 그 틈새에 기체를 함유한 구조. 또는 다공질의 고체에서 실질 부분이 콜로이드 차원의 크기의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노벨상 탐구 발표 경연대회는 연구하고 싶은 기초과학 주제를 제안하고, 그 연구 성과가 인류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회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류



국방 ICT 융합 산·학·관·군 협력대전

지역 민·군 융합 분야 일자리 창출
국방 신제품 전시 및 정보 교류 기회 제공

일자리 창출 및 국방 기업 신제품 전시를 위한 '2017년 국방 ICT 융합 산·학·관·군 협력대전 및 정보화 컨퍼런스'가 11월 3일 구미코에서 열렸다. LINC+사업단과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국방부와 교육부, 구미시, 한국연구재단, 우리 대학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민·군 융합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관군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상철 우리 대학 총장을 비롯해 백승주 국회의원,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김인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우병운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과 산학관군 관계자 및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방 기업과 국방 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와 학술연구 성과들이 발표돼 다양한 정보 교류가 이뤄졌다. 특히 방위 분야 기업 및 군무원, 부서관 등 국방 분야 채용 설명회가 열려 지역 대학 및 고등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천 ICT산업 육성 컨퍼런스

경북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대학 인프라, 기업 역량 강화와 연계

우리대학이 지역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김천 ICT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1월 15일부터 2일간 경북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김천시 울곡동)에서 진행된 컨퍼런스는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와 LINC+사업단(단장 김학성)이 공동 주관했다. 경북지역과 경북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자리한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 △ICT 기업 연구 협의회 구성 △신재



생에너지·첨단 ITS·CT융복합 관련 지역 이전 기관 협력연구 △김천 혁신도시 신규 연구기관 유치 등을 위한 발표와 토론의 시

Creative-Idea EXPO 2017

지역 기업과 학생작품 기술사업화 MOU 체결
학생·창업동아리 작품, 사업화 지원



“C(Creative)-Idea EXPO 2017” 행사가 11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교내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C-Idea EXPO는 LINC+사업단과 공학

교육혁신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경권기업성장지원센터, (사)대구경북성공CEO포럼의 공동 주관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일반·기업연계·융합형 캡스톤 디자인 작품 159개와 창업 동아리 작품 25개,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작품 등 총 180여 개가 넘는 아이디어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알리스(ARLISS) 2017(미국 캔워성 대회)'의 드론부문 최우수 기술상에 오른 '접이식 자율주행 쿼드콥터' 등 대외 수상 작품이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대학은 이번엔 출품된 아이디어 작품들에 대해 기업성장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이버 옥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산업체와 연결,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초기 사업화가 가능한 작품 13건은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과 '학생작품 기술사업화 MOU'를 체결하며, 창업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

'인식센서가 탑재된 안전헬멧과 잠금장치' 작품으로 (주)NDK(대표이사 김성수)와 MOU를 체결한 이종문(전자공학부 4)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함께 큰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기업 및 산학연 관계자와 지역 고등학생,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이번 C-Idea EXPO는 우리 대학 공학혁신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kit Engineering Fair 2017'와 함께 열려 규모 및 내용 면에서 더욱 풍성해졌다.

제3회 전공체험 · 과학경진대회

공학계열 진학 희망 고교생, 전공 체험 경험
적성 · 전공 불일치 해소, 진로탐색 기회



우리 대학은 10월 14일, 대학 체육관에서 '전공체험 및 과학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공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지역 고교생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우리 대학 융합형 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단장 신동원)은 실험실 투어 및 수업 참여 체험 등을 통해 대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설계, 제어 등의 이론 및 실기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공체험에 이어 열린 과학경진대회에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드론 비행 및 착지, 장애물 넘기 등의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 결과 창의 설계 부문은 아디오스팀(팀장 한도경, 사곡고 2), 장애물설계 부문은 Drone One팀(팀장 김민서, 선산고 1), 베스트스피드 부문은 성수국팀(팀장 양재성, 사곡고 2)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전공체험 행사에는 우리 대학 기계시스템공학과 학생 30여명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 인재로서의 책무를 실현하고, 고교-대학 간 연계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조재철 학생(기계시스템공학과 3)은 "평소 학업을 통해 익힌 지식을 청소년들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우리 대학 융합형 프로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장은 "이번 대학 체험은 지역 고교생에게 적성과 전공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it Culture



대통령의 글쓰기 작가 강원국 '북 콘서트'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초청 "소통과 리더십" 관련 작가와의 대화



창의적 사고와 소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북 콘서트'가 글로벌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우리 대학 도서관(관장 임재권) 주관으로 열린 이번 북 콘서트에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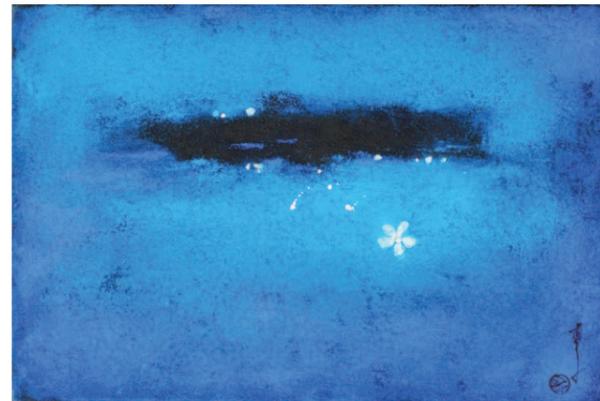
음악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 2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2부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1부는 '소통과 리더십에 대하여'를 주제로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강 작가는 8년간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리더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며, 참모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눠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부 '글쓰기 공부가 필요한 이유'에서는 자기소개서와 기획서 등 생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 작가는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우선 생각나는 것을 적고, 고쳐나가는 과정을 통해 글이 완성되는 즐거움을 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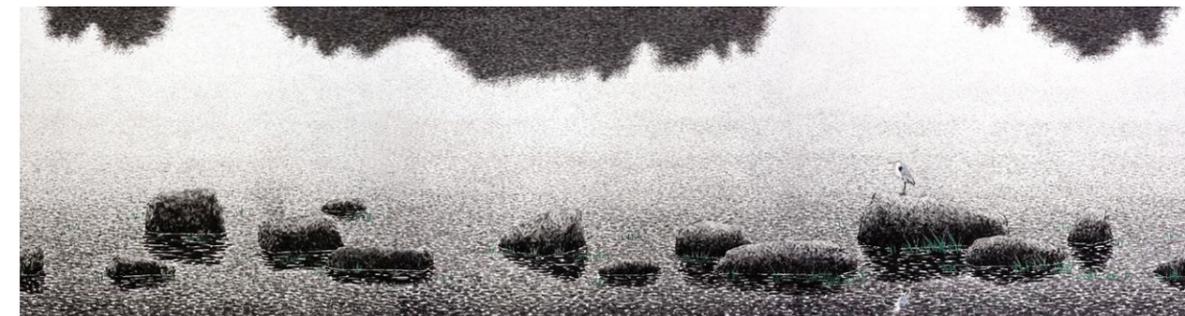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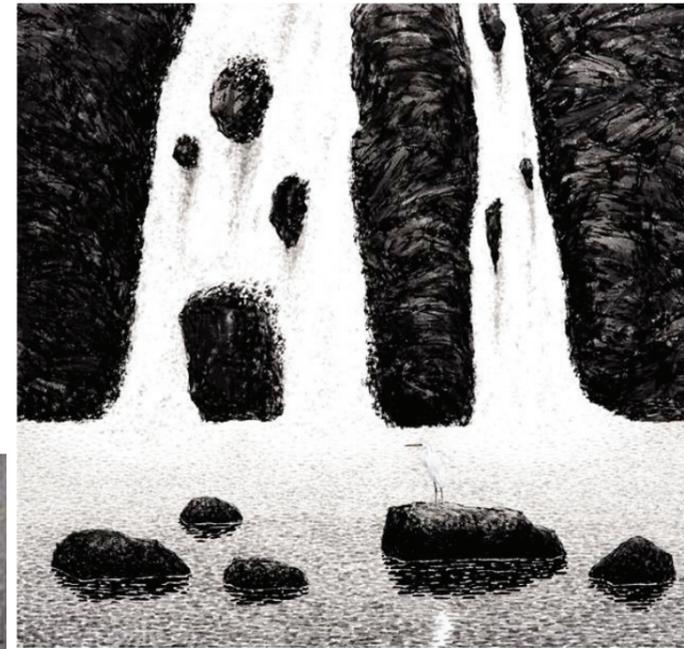
강원국 작가는 서울대 외교통과 졸업 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북대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대통령의 글쓰기, 회장님의 글쓰기 등이 있다.



금오공대갤러리
이지수 초대전



금오공대갤러리
이민한 초대전



NH농협은행, 우리 대학 발전기금 전달

지역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동구미지점(지점장 박병규)이 11월 27일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다.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이상철 총장과 정인희 기획협력처장, 송영준 학생처장, 정연구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NH농협은행 박병규 동구미지점장과 김정희 금오공대출장소장이 참석했다.

박병규 지점장은 “대학사랑기금이 우수인재 양성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대학과 함께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우리 대학 경영학 석·박사원우회 발전기금 전달

우리 대학 경영학 석·박사원우회(회장 김경미)가 11월 28일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기탁식에는 이상철 총장과 정인희 기획협력처장, 이용환 경영학과장을 비롯해 김경미 원우회장, 고재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미 회장은 우리 대학 경영학 석·박사원우회장은 “모교가 미래 공학교육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되길 바라는 선배들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후배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끌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오공대 경영학 석·박사원우회는 지난 2014년부터 3천여만 원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 후원의 집을 소개합니다.

연번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업종
1	거제복집	김영자	054) 462-0096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49	한식(복어)
2	공대상가	황태진	010-6603-3007	경북 구미시 대학로39	상가
3	금오산성숯불갈비	윤숙자	054) 457-7500	경북 구미시 산업로224	한식
4	금오산한우마을	김현숙	054) 473-8688	경북 구미시 옥계남로7-5	한식
5	동구미자동차정비	전기준	054) 476-3300	경북 구미시 거양길 242	차량 정비
6	마모트	유학중	054) 444-8890	경북 구미시 공원로 372(형곡동)	등산복
7	미쉐린 타이어서비스센터	김창일	054) 462-9012	경북 구미시 금오대로345	타이어
8	베스트 샵	황원재	054) 474-8877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24길 49번지	LG 가전
9	본도시락 옥계점	박희열	054) 474-4285	경북 구미시 옥계북로74	한식
10	삼성특관	장세광	054) 464-4141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271	가전
11	성피부과	성준제	054) 455-339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4 멀티복합상가	의료
12	신념종합상사	박충근	054) 475-0980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5길 12-12	건축 자재
13	신동아 인쇄기획	김진순	054) 464-3500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32길 5-2	제본 인쇄
14	에코숨	석주윤	054) 471-4491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대 벤처창업관 204-1호	제조
15	원조쌈밥	윤정이	054) 441-1851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20길 4	한식
16	타이어백화점	김창일	054) 462-9012	경북 구미시 오태동 왕산로 220	타이어
17	포항가자미회	이정태	054) 451-3433	경북 구미시 신시로16길 97	일식(회)
18	한려수도	이갑선	054) 457-6900	경북 구미시 형곡서로121	일식(회)
19	한우명가 육림촌	조정운	054) 474-3030	경북 구미시 산동면 강동로982	한식
20	황강장어	김선미	054) 455-4783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3길 15	한식(장어)
21	(주)성윤투어	정성윤	054) 472-5900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31길6 2층	여행사
22	(주)해피투게더투어	이태식	010-8923-9863	경북 구미시 아은로455 삼성빌딩 3층	여행사

*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는 후원의 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발전후원금 약정을 감사드립니다.

월 별	약 정 액
2017. 7. 1. ~ 2017. 11. 30.	82,205천원

약정하신 분 (2017. 7. 1. ~ 2017. 11. 30.)

1천만원 이상

이상철(금오공과대학교 총장)	10,000,000원	최병호(신소재공학부 교수)	10,000,000원
최은오(전자전산전공 '82)	10,000,000원		

♥ 발전후원금 약정

신건우(소프트웨어공학전공 '08)	6,000,000원	김병철(대학원장)	1,000,000원	이정희(구미시민)	100,000원
(주)아이엔티텍(정진형 대표)	5,000,000원	유니에버(주)(김경환 대표)	1,000,000원	김소라(신소재공학부 '14)	94,000원
(재)삼성복지재단	3,675,000원	이승희(경영학과 교수)	1,000,000원	이성민(신소재공학부 '15)	94,000원
이태원(산업대학원장)	3,000,000원	이윤형(산학협력중점교수)	1,000,000원	이지호(신소재공학부 '10)	94,000원
(주)진성전자(서길호 대표)	2,052,000원	지선구(산학협력단 교수)	1,000,000원	류수진(구미시민)	30,000원
국방 IT 미니클러스터 회원 일동	2,000,000원			박민경(구미시민)	30,000원
권현규(입학관리본부장)	2,000,000원			박종원(구미시민)	3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토닥회	2,000,000원			서성호(구미시민)	30,000원
송영준(학생처장)	2,000,000원			안혜수(구미시민)	30,000원
정인희(기획협력처장)	2,000,000원			오성훈(구미시민)	30,000원
정연구(산학협력단장)	2,000,000원	최낙렬(교양교직과정부 교수)	700,000원	오유림(구미시민)	30,000원
(주)대송(박중하 대표)	1,500,000원	거제복집(김영자 대표)	600,000원	이상연(구미시민)	3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최경총동창회	1,500,000원	본도시락 옥계점(박희열 대표)	600,000원	장재벽(구미시민)	3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동문회	1,200,000원	마모트 금오산점(유학중 대표)	600,000원	정인경(구미시민)	30,000원
(주)성윤투어(정성윤 대표)	1,200,000원			정진정(구미시민)	30,000원
(주)해피투게더투어(이태식 대표)	1,200,000원			조홍준(구미시민)	30,000원
금오산한우마을(김현숙 대표)	1,200,000원			주영근(구미시민)	30,000원
신념안전종합상사(박충근 대표)	1,200,000원			최연희(구미시민)	30,000원
재강통상(김동규 대표)	1,200,000원	이영순(전자공학부 교수)	400,000원	황정애(구미시민)	30,000원
신동(소프트웨어공학전공 '11)	1,111,000원	최원열(토목공학전공 '05)	300,000원	정권재(서울대학교 한국연구원)	10,000원
곽윤근(건축학부 교수)	1,000,000원	이석열(전자제어공학전공 '90)	100,000원		

금오공대 소식지 구독자들에게 //////////////////////////////////////

(재)금오공과대학교발전기금은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금오공과대학교의 학술연구기금, 도서기금, 장학기금, 연구기자재기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대학 발전기금 참여 방법)

기부의 형태 :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도서
 참여 방법 : 계좌이체
 (농협은행 785-01-037878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대구은행 504-10-103390-1 예금주 :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발전기금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 별	모 금 액
2017. 7. 1. ~ 2017. 11. 30.	77,530천원

기탁하신 분 (2017. 7. 1. ~ 2017. 11. 30.)

1천만원 이상

이상철(금오공과대학교 총장)	10,000,000원	최병호(신소재공학부 교수)	10,000,000원
최은오(전자전산전공 '82)	10,000,000원		

♥ 발전후원금 모금

(주)아이엔티텍(정진형 대표)	5,000,000원	금오산한우마을(김현숙 대표)	500,000원	이지호(신소재공학부 '10)	94,000원
(재)삼성복지재단	3,675,000원	데이터콤(강전학 대표)	500,000원	거제복집(김영자 대표)	50,000원
이태원(산업대학원장)	3,000,000원	양대호(직원)	500,000원	김국조(직원)	50,000원
(주)진성전자(서길호 대표)	2,052,000원	포항가자미회(김정태 대표)	500,000원	김동성(전자공학부 교수)	50,000원
국방 IT 미니클러스터 회원 일동	2,000,000원			마모트 금오산점(유학중 대표)	50,000원
권현구(입학관리본부장)	2,000,000원			본도시락 옥계점(박희열 대표)	5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토덕회	2,000,000원			신건우(소프트웨어공학전공 '08)	50,000원
송영준(학생처장)	2,000,000원			안태욱(컴퓨터공학전공 '94)	50,000원
정인희(기획협력처장)	2,000,000원	최원열(토목공학전공 '05)	300,000원	이명열(기계공학전공 '12)	50,000원
정연구(산학협력단장)	2,000,000원	윤정이원조쌈밥(윤정이 대표)	200,000원	진종영(산업경영학전공 '96)	50,000원
(주)대송(박중하 대표)	1,500,000원	김용원(직원)	150,000원	최현주(메디컬융합공학전공 윤지호 학부모)	5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최경총동창회	1,500,000원	양병삼(전자공학부 양정일 학부모)	150,000원	류수진(구미시민)	3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고분자동문회	1,200,000원	한상규(직원)	120,000원	박민경(구미시민)	30,000원
신동(소프트웨어공학전공 '11)	1,111,000원	(주)성운투어(정성운 대표)	100,000원	박종원(구미시민)	30,000원
곽윤근(건축학부 교수)	1,000,000원	(주)해피투게더투어(이태식 대표)	100,000원	배호균(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30,000원
김병철(대학원장)	1,000,000원	권승운(직원)	100,000원	서성호(구미시민)	30,000원
유니에버(주)(김경환 대표)	1,000,000원	금오산한우마을(김현숙 대표)	100,000원	안혜수(구미시민)	30,000원
이승희(경영학과 교수)	1,000,000원	김도형(환경공학전공 '98)	100,000원	오성훈(구미시민)	30,000원
이윤형(산학협력중점교수)	1,000,000원	나윤미(직원)	100,000원	오유림(구미시민)	30,000원
지선구(산학협력단 전임교원)	1,000,000원	신념안전중합상사(박충근 대표)	100,000원	이상언(구미시민)	30,000원
		이석열(전자제어공학전공 '90)	100,000원	장재벽(구미시민)	30,000원
		이정희(구미시민)	100,000원	정인경(구미시민)	30,000원
		재강통상(김동규 대표)	100,000원	정진정(구미시민)	30,000원
		정재훈(직원)	100,000원	조홍준(구미시민)	30,000원
		한희중(직원)	100,000원	주영근(구미시민)	30,000원
신동아인쇄기획(김진순 대표)	750,000원	김소라(신소재공학부 '14)	94,000원	최연희(구미시민)	30,000원
백호진(전자공학부 백민경 학생 학부모)	700,000원	이성민(신소재공학부 '15)	94,000원	황정애(구미시민)	30,000원
최낙렬(교양교직과정부 교수)	700,000원			정권재(서울대학교 한국연구원)	10,000원
이영순(전자공학부 교수)	650,000원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약정번호 :

기부자명 <input type="checkbox"/> 익명희망	주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우 -)	연락처 자택 H/P	
약정자 구분	동문 <input type="checkbox"/> 학부(과) _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_	<input type="checkbox"/> 최경과정 (제 기)
	기업체 회사명 _	대표자 _	
	학부모 학생성명 _	학부(과) _	
	교직원		
약정금액	금 원 (₩)	추천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여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 농협은행 785-01-037878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input type="checkbox"/>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교직원에 한함, 동의서 작성)		
	예금주	(인/서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1일 15일
납입기간	금 원씩(회) (년 월 ~ 년 월까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동의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종류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서명	
기부금용도	<input type="checkbox"/> 대학사랑기금 <input type="checkbox"/> 장학기금 <input type="checkbox"/> 지정장학기금(학과명:) <input type="checkbox"/> 대학문화기금 <input type="checkbox"/> 시설확충기금 <input type="checkbox"/> 도서기금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기금 <input type="checkbox"/> 연구기자재확충기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개인정보 수집이동의의사	본인은 (재)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하고 기부함에 있어 기부금 입금 처리 및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 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담당기관이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 : 발전기금 기부자 관리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부금 입금 처리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전화번호, 이메일, 기부내역)등 기부자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금오공과대학교 발전을 위한 후원기금으로 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자

서명

금오공과대학교 발전후원회장 귀하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kit 설경

젊은 선

보내는 사람

주소

□ □ □ □ □



받는 사람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
금오공과대학교 기획협력처 발전기금 담당자 귀중

3 9 1 7 7

대학발전기금의 종류 및 용도

- 대학에 일임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 도서관 기금 대학 도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 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 장학 기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을 실현
-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 기 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발전기금 납부방법

- 방문 납부 직접 금오공대 기획협력처(본관 601호)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농협은행 785-01-037878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또는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로 입금하시고 입금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CMS 자동이체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이체 가능

* 현금 이외의 현물(주식, 부동산, 소장품 등) 기부 시 기획협력처(054-478-7080)으로 연락주시면 기부방법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 개인기부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의 100%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34조 2항, 소득세법 52조 6항)
- 법인기부 (주식회사, 법인단체)
발전기금에 출연하신 기부금은 연간 소득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24조 2항) (단, 2009년부터는 연간소득금액의 50%)
- 상속재산기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함)

